

초구조(superstructure) 조건절과 응집력 장치(cohesive tie)로서 접속사 *so**

김영국

(한국성서 대학교)

Kim, Young Kook. 2008. Superstructure of *if*-condition and Conjunction *so* as a Cohesive Tie.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16(4), 173-186. In this paper, I argue that the conjunction *so*, a cohesive tie, may be interpreted as an *if*-conditional structure which is the superstructure for the text, and that the conditional structure plays a crucial role in interpreting the Matthew 7:7-12 of the Bible. I assume that the passage Matthew 7:7-8 is the main clauses and verse 12 is a kind of conditional clause. It shows a typical conditional structure: *If A*(verse 12), *then B*(verses 7-8). The interpretation for the whole given text, otherwise, will lose the relationship between verses 7-8 and verse 12. If we take the conditional structure (*if*-condition) as the superstructure for the whole given text, connecting the verses 7-8(*ask and it will be given to you; seek and you will find; knock and the door will be opened to you*) to verse 12 (*If in everything, you do to others what you would have them do to you*), the text meaning seems to be clear: *If in everything, you do to others what you would have them do to you, ask and it will be given to you; seek and you will find; knock and the door will be opened to you.*

주제어(Key Words): discourse, *if*-conditional, superstructure, macrostructure, cohesive tie, cohesion

1. 서문

담화 전체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담화의 구성요소인 단어나 각 문장들의 의미도 중요하지만 담화 전체의 구조(문법 구조도 포함)를 이해해야 한다. 담화의 전반적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 담화에서 사용하고 있는 초구조(superstructure)가 무엇이며, 그 구조를 통해 담화 전체의

* 익명의 심사위원 3명으로부터 여러 가지 comment를 받았으며 자세한 comment에 감사 드린다.

cohesion(응집력)을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지를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본 논문은 성경 마태복음 7:7~12절을 text로 사용하여 이 text의 전체 의미 혹은 주제가 무엇이고, 이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담화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담화의 초구조¹⁾(superstructure)가 무엇이며, 그리고 이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cohesive tie(응집력 장치)²⁾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 2장에서는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제 3장에서는 text를 가지고 2장에서 살펴본 이론을 바탕으로 분석해 보이겠다. 분석에 사용되는 텍스트(text)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의 영어 성경(NIV)³⁾을 사용하고 있다.

2. 이론적 배경

글은 독립된 문장 자체로서 의미를 갖기도 하지만 문과 문이 모여 담화를 이루면서 의미가 더 풍성해진다. 그리고 이 글(담화)은 반드시 하나의 일관된 주제를(내용) 독자에게 혹은 청자에게 전달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글이나 담화를 분석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가 이 담화(글)의 일관된 주제를 찾는 것이다. Halliday(1970)에 따르면, 담화 전체에 흐르는 그러한 일관된 주제를 상위주제(hypertext)⁴⁾라고 한다. 예를 들면 아래 (1)은 전체를 일관하는 상위주제가 없고, (2)에는 그 주제가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다 (Halliday and Hasan 1976).

(1) We will go to the zoo tomorrow. The kitchen knife was broken by the nurse whom we hired last week. The president adopted a new policy, but my father bought a new bicycle for John. Three years ago, I started to study French although Bill said unexpectedly that the earth is flat.

1) 필자는 본 text에서 초구조는 조건절(*if*-conditional)이라고 보고 있다.

2) 본 논문이 text로 사용하는 성경 마태복음 7:7~12절에서 담화 전체의 일관성(의미론적, 문법적)을 유지하는 구체적인 cohesive tie로 접속사 so (혹은 therefore)가 사용되고 있으며, 이 접속사가 superstructure에 맞기 위해서는 조건절로 해석되어야 한다.

3) New International Version

4) van Dijk(1980)의 개념으로는 macrostructure라고 할 수 있다.

- (2) I walked through a park. The trees were already green. In a beech was a beautiful wood-pecker. It seemed to be whispering that summer had come. (박근우 1992)

예문 (2)에서는 글 전체를 일관하는 상위주제로 공원(park)이라는 단어가 있고, 이 단어의 하위어(hyponym)로서 *trees, beech, woodpecker, summer* 등이 나타면서 4개의 문장을 적절하게 연결시켜주고 있다 (강명렬 1990).

그런데 담화를 담화답게 일관성 있는 글로 만들기 위해서는 위 예문 (2)가 보여주는 것처럼 일관성 있는 주제와 이를 연결해주는 하위어들의 적절한 배합이 필요하듯이, 담화가 적절하고 문법적으로 타당하기 위해서는, 일관된 구조(초구조:superstructure)가 있어야 한다.

2.1. 초구조 (superstructure)

van Dijk(1980)에 따르면 담화는 전체로서 하나의 의미구조(meaning structure)를 갖을 뿐 아니라 구조화된 내용을 제시하기 위해 일종의 틀로 짜인 담화구조(a kind of prefab structure)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그는 그러한 구조를 superstructure라고 부르고 있다. 예를 들어, 수동태라는 (문장내) 문법이 문장과 문장들 사이를 어떻게 연결해주고 전체적인 의미를 어떻게 갖도록 작동하는지 살펴보자.

- (3) a. What did the rain do?
 b. The rain destroyed the crops.
 c. It destroyed the crops.
 d. Destroyed the crops.
 e. # The crops were destroyed by the rain.
- (4) a. What happened to the crops?
 b. The crops were destroyed by the rain.
 c. They were destroyed by the rain.
 d. Destroyed by the rain.
 e. # The rain destroyed the crops.⁵⁾ (박근우 1992)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동태라는 문법이 (3)에 적용되면 전체 문맥이 자

5) #는 문맥상 문장이 어색하다는 뜻이지 문법적으로 그 문장이 비문이라는 뜻은 아니다.

연스럽지 않지만, (4)에 사용되면 전체 문맥을 이해하는데 아주 적절하게 보인다. 반면 능동태는 (3)에서는 아주 좋지만 (4)에서는 적절하지 않게 된다(Thompson 1982). 따라서 어떤 담화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휘 표현 들인 단어나, 이들로 구성된 문장, 혹은 문단들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전체 담화를 구성하고 있는 구조, 즉 superstructure를 파악하면 담화의 의미를 더 잘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초구조는 담화의 의미뿐 아니라 담화의 성격도 보여줄 수 있다. 즉 편지글은 편지글만이 갖는 독특한 구조가 있고, 과학 논문은 학문적 논문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구조가 있다. 따라서 그 글의 초구조를 파악하면 의미 파악도 그만큼 쉬워진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살펴볼 text인 마태복음 7:7~12절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교훈 글로 볼 수 있다. 교훈 글이나 예화 같은 글은 나름대로 작가에 따라 독특한 담화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더욱이 이런 글의 특징은 어휘적 표현들의 문자적 뜻(content)도 중요하지만, 담화 전체의 구조(superstructure)를 잘 파악해야 담화 전체의 의미(macrostructure)를 잘 이해할 수 있다.

2.2 응집력 장치(cohesive tie)

담화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화자(작가)가 어떠한 초구조(superstructure)에서 어떠한 응집성(cohesion) 장치를 이용하여 담화의 주제를 표현하고 있는가를 이해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의 담화가 개개의 혹은 때때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 단어나 구, 절들로부터 어떤 메시지(macrostructure; hypertheme)를 전하기 위해서는 언어학적인 응집성(결합력; cohesion)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담화에서 담화 전체의 일관성을 유지해 주는 응집력은 언어의 어떤 특성이 만들어 주는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을 Halliday and Hasan(1985)과 Reed(1999)설명에서 찾아보자. 그들에 따르면, 언어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특성이 담화의 응집력을 가능케 한다고 한다.

첫째, text와 외부세계(external world; context)와의 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 여기서 외부세계는 그 text가 만들어진 사회의 문화나 상황의 context를 의미한다.

둘째, text와 내적세계(inner world; co-text)와 관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첫 번째 관계는 그 text가 만들어진 시대의 역사적 문맥과 연관돼 있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 관계는 그 text자체 내에 있는 언어학적 표현들

(linguistic expressions)의 상호관계를 말한다. 이 경우에 담화의 한 요소의 해석은 같은 담화 속에 있는 다른 요소들과의 연관 관계에 달려 있다는 뜻이다. 본 논문에서는 두 번째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text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Halliday and Hassan(1985)의 설명을 보면, text안에서 언어학적 표현들에 응집력을 주는 장치로써(cohesive ties = cohesive devices)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Organic ties와 componential ties⁶⁾이다.

2.2.1. Organic ties(유기적 장치)

유기적 장치는 주로 접속사 (for, also, and) 같은 것을 의미한다. 즉, 앞 문장과 뒤 문장 혹은 앞 문단과 뒤 문단을 의미적으로 연결해준다. Reed(1999)에 따르면, 이 유기적 장치는 hypotaxis와 parataxis라는 두 가지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다. Hypotaxis는 종속되고(dependent) 있는 요소와 종속하고(dominant)있는 요소와의 관계를 말한다. 즉 수식 관계를 말한다. 한 요소는 다른 요소에 종속되어 있고, 그 요소들의 순서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반면에 Parataxis는 어떤 언어학적인 두 요소를 동등하게(종속이 아닌) 연결시키는 관계를 의미한다. 따라서 서로 의미적으로 독립되어 있다.

유기적 장치가 표현되는 또 다른 방식은 주문장과 종속 문장이 관계하는 방식인데, 이에 두 가지가 있다.

첫째, Projection(투사)이다. 이는 종속절(종속문장)이 반드시 주절(주문장)을 통해서만 나오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I want to go.' 나 'I think that John is an American' 이라는 문장에서 'to go' 나 'that John is an American'은 반드시 'I want' 나 'I think' 라는 주절을 통해서만 존재할 수 있다. 이 경우 'I want' 와 'to go'의 관계를 말한다. 즉, 'to go'는 'I want'를 통해서만 Projection 될 수 있다.

두 번째, expansion(확장)의 경우에는, 종속문이 주문장을 확장 시켜 주는 것이다. 이 확장의 경우는 (1) elaboration, (2) extension, (3) enhancement 세 가지로 나타날 수 있다. Elaboration의 경우, 종속문(dependent clause)은 주문(main clause) 위에서 확장된다. 즉, restating, specifying, commenting 혹은 exemplifying등이다. Extension의 경우, 종속문은 주문에서 벗어나 다른 곳으로 이동하거나 대안을 제시하면서 주문을

6) organic ties와 componential ties의 개념은 Reed(1999)가 설명한 것을 요약한 것이다.

확대하는 경우이다. Enhancement의 경우, 시간, 장소, 원인 혹은 조건 같은 상황적 특성을 나타내는 어휘를 이용하여 주절을 수식하는 경우이다. 다음 도표⁷⁾는 expansion이 나타나는 세 가지(dabration, extension, enhancement)의 예를 보여 주고 있다.

도표 I. Expansion의 종류

ELABORATION(+)	
Apposition	(restate or re-present)
expository	in other words, that is, I mean, to put it another way
exemplifying	for example, for instance, thus, to illustrate
Clarification	summarize or make precise
corrective	or rather, at least, to be more precise, on the contrary, however
particularizing	in particular, more especially
summative	in short, to sum up, in conclusion, briefly
EXTENSION(=)	
Addition	
positive	and, also, moreover, in addition
negative	nor
Adversative	but, yet, on the other hand, however
Variation	
replacive	on the contrary, instead
subtractive	apart from that, except for that
alternative	alternatively, or
ENHANCEMENT(×)	
Spatio-Temporal	
following	then, next, afterwards
simultaneous	just then, at the same time
preceding	before that, hitherto, previously
conclusive	in the end, finally
immediate	at once, immediately, straightaway
interrupted	soon, after a while
repetitive	next time, on another occasion
specific	next day, an hour later, that morning

7) Reed(1999)의 논문 p.34-35에 나와 있다.

	durative	meanwhile, all that time
	terminal	until then, up to that point
Comparative	positive	likewise, similarly
	negative	in a different way
Causal-Conditional	(1)causal	
	result	in consequence, as a result
	purpose	for that purpose, with this in view
	reason	on account of this, for that reason
	basis	on the basis of, in view of
	(2)conditional	
	positive	then, in that case, if, under the circumstances
	negative	otherwise, if not
	concessive	yet, still, though, despite this, however, even so, nevertheless
	Respective	positive
negative		in other respects, elsewhere

2.2.2 Componential ties

Organic ties는 절과 절, 문단과 문단사이의 의미적 관계를 규명하는데 관여하는 장치들인 반면에, componential ties는 단어와 단어 둘 사이의 의미적 관계를 규명하는데 사용되는 장치들을 의미한다. Halliday and Hasan(1976)은 이러한 장치들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① co-reference, ② co-classification, ③ co-extension. co-reference는 똑같은 실체를 가리키는 언어학적 표현들 사이의 응집 장치를 말한다. 예를 들면 ‘Mary bought the car which she gave to her mother.’에서 the car와 which 는 같은 실체를 가리킨다. 이때 이 둘을 co-reference 관계에 있다고 한다. Co-classification은 일종의 ‘대체(substitution)’이다. 예를 들면, ‘John wants his wife to clean the house.-The woman works at the school.’에서 ‘his wife’와 ‘the woman’이 같은 사람을 가리키기 때문에 바꾸어 쓴다면, his wife와 the woman이 일종의 co-classification 이라는 장치를 통해 응집력(cohesion)을 형성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Co-extension의 경우는 같은 의미를 공유하고 있는 field의 단어들 사이에 있는 cohesive ties

(응집력 장치)을 말한다. 예를 들면, 'John ate the pizza'와 'Mary gobbled down the cake'에서, John/ Mary, ate/gobbled down, pizza/cake은 같은 실체를 가리키지는 않지만, 이 두 문장 사이에 일종의 응집력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응집력은 주로 어휘들을 통해서 일어난다.

본 논문에서는 유기적 장치가 표현되는 두 번째 방식인 expansion의 경우를 이용하여 text를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expansion의 경우 중 세 번째인 enhancement의 조건절 상황(conditional circumstances)을 이용하고자 한다.

3. superstructure의 조건절(conditional)

먼저 성경 본문을 영어로 살펴보자. 본문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이다.

- (5) 7. "Ask and it will be given to you; seek and you will find; knock and the door will be opened to you.
 - 8. For everyone who asks receives; he who seeks finds; and to him who knocks, the door will be opened."
 - 9. "Which of you, if his son asks for bread, will give him a stone?
 - 10. Or if he asks for a fish, will give him a snake?
 - 11. If you, then, though you are evil, know how to give good gifts to your children, how much more will your Father in heaven give good gifts to those who ask him!
 - 12. So in everything, do to others what you would have them do to you, for this sums up the Law and the Prophets.
-
- (6) 7.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 8.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 열릴 것이니라
 - 9.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 10.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 11.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 12.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한글해석(성경전서 개역 한글판):

영어에서 문장들이 *and* 나 *or* 접속사로 연결되면 조건절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 (7) a. Study hard, and you will pass the exam.
b. If you study hard, you will pass the exam.
- (8) a. Study hard, or you will fail the exam.
b. If you don't study hard, you will fail the exam.

마찬가지로 영어 성경의 마태복음 7장 7-8절의 경우 *and* 문장을 *if*-조건절로 바꿀 수가 있다.

- (9) a. Ask and it will be given to you; seek and you will find;
knock and the door will be opened to you.
b. If you ask, it will be given to you; if you seek, you will find; if you knock, the door will be opened to you.

7-8절의 구조는 조건절 구조이다. 즉, '--하면(*if*), --된다'의 구조이다. 이 구조를 잘 살펴보면 조건을 지키면 나머지는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즉, 구하면(*ask*) 주어지는(*be given*) 것이다. 그런데 성경 해석상 7-8절을 '누구나 구하기만 하면 얻는다.'고 해석하지 않는다. Hagner(1995)에 따르면, '우리가 무엇이든 구하기만 하면 모두 얻게 되리라'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구하면 주어지는데 이를 또한 조건지우고 있다는 것이다. 이 조건이 무엇이냐가 이 구절의 해석에 있어 관건이다. 만일 이 조건 없이 해석한다면 신자든 불신자든 '누구든 구하기만 하면 다 주어진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일단 이를 그대로 두고 마지막 절인 12절을 보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So in everything, do to others what you would have them do to you, for this sums up the Law and the

Prophets). 이 마지막 절도 또한 조건절로 환원할 수가 있다.

- (10) a. So in everything, do to others what you would have them do to you, for this sums up the Law and the Prophets.
 b. If in everything, you do to others what you would have them do to you, _____, for this sums up the Law and the Prophets.

(10b)를 보면 *if*-절은 있는데 주절이 생략 되어 있다. 만약 *if* 절로 바꾸면, 문장이 이상하게 환연된다. 왜 주절이 없을까? 필자는 여기서 이 12절의 주절에 해당하는 내용이 위 7-8절의 내용이라고 여겨진다. 즉, ‘구하면 주어지는데 더 큰 전체로(조건), 먼저 네가 남에게 받고 싶은 대로 행하고 나서 구하면 주어진다’는 것이다. 이를 문장 구조상 *if A, then B*의 관계로 보자. 먼저 조건절을 A라 하고, 주절을 B라 하자. 그렇다면 7-8절은 A-B 구조로 되어 있다. 그리고 12절을 역시 A-B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런데 12절의 비어 있는 B는 7절의 A-B전체 구조인 것으로 가정해보자. 만약에 7-8절을 12절의 하반절 주절로 보고, 12절 상반 절을 조건절로 본다면, 전체 담화의 일관성을 위해 조건절이 문장을 건너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만약에 담화 속에 숨어 있는 이 조건절이라는 초구조(superstructure)를 간과 한다면 이 전체 맥락의 해석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앞의 7-8절을 하나로 보고(A-B전체를 하나의 B), 나머지 12절 상반 절을 또 다른 하나의 조건절(A)로 보면, 앞뒤 문맥의 의미가 정확히 살아난다. 접속사 *so*는 앞과 뒤를 연결하는 조건절의 접속사 *if*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 (10b)에서 본바와 같이 *so*이하를 *if*로 바꾸어 해석하고 생략된 주절의 자리에 7절(이탤릭체)을 넣고 해석하면 문맥이 완벽하게 살아난다.

- (11) If in everything, you do to others what you would have them do to you, *ask and it will be given to you; eek and you will find; knock and the door will be opened to you.*

즉, ‘만일 네가 남에게 대접 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면, 그리고 나서 네가 원하는 바를 구하면, (구하는 것이) 주어질 것이다.’ 라는 뜻으로 해석이 자연스럽게 된다. 7-8절에 나와 있는 조건절-주절의 문법을 독자로 하여금 친숙하게 한 다음에 문장(7-8절)과 문장(12절)을 연결하는 전체의 고리로

상위 조건절을 사용하고 있다. 만약에 7-8절과 12절 사이에 조건절 관계가 없다면, 이 문맥의 해석은 정말 이상하게 된다. 따라서 필자는 이 조건절을 이 전체 문맥을 이해하는 필수적인 담화의 초구조(superstructure)라고 보고, so라는 접속사는 앞 7-11절의 내용과 마지막 12절의 내용을 연결해주는 하나의 cohesive tie(응집력 장치)로 보고자 한다. 따라서 문장속의 조건절이라는 문법이 담화 속에서 담화 전체의 의미해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초구조(superstructure)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전체 담화의 주제(먼저 대접하라 그러면 대접 받는다)가 so라는 접속사를 조건절로 환원하고(즉, so를 cohesive tie로 환원), 그 조건절을 초구조로 이용하여 정교하게 독자들에게 전달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4. 다른 해석들

마태복음 7장 12절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위에서 살펴본 초구조(superstructure)와 응집력 장치(cohesive tie)를 이용한 해석 이외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다.

개신교계의 가장 위대한 주석가인 Calvin(1972)은 마태복음 7장 7-11절과 그 뒤에 오는 12절은 서로 전혀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 따라서 12절 초반에 나오는 접속사 ‘그러므로(so)⁸⁾’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한다. 앞 문장이나 앞 절과 어떤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고 보지 않고 있다. 여기에서 이 접속사는 아무런 이유 없이 삽입되어있다는 뜻이다.

반면에 또 다른 주석가인 Lenski(번역: 문창수, 2000, pp.262-263)에 따르면, ‘그러므로(so)’라는 접속사의 해석을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우리가 비록 본성으로 악하다 해도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우리에게 필요한 좋은 것을 구하라고 명령하시며 또 이것들을 틀림없이 주시는 우리 아버지에 의해 것처럼(자녀로) 인정되고 있는 이상 ‘그러므로’가 뒤에 나오는 12절(즉, 황금률)을 있게 하는 근거이다.”라고 한다. 즉,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천국을 소유하고 또 기도도 할 수 있는 특권도 받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해주었으면 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우리에게 해주지 않아도 상관없이 우리는 그들에게 그것을 계속 해주어야 한다.”라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다. 12절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7장 7절-11절이라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so(혹은

8) King James Version에는 so 대신에 접속사 therefore를 쓰고 있다.

therefore)는 매우 중요한 접속사라고 한다.

또 다른 주석가인 William(1980)에 따르면, 12절은 앞의 7-11절을 요약하는 것으로 보면서 *so(therefore)*라는 접속사가 앞과 뒤를 연결한다고 보고 있다. 그에 따르면 마태복음 7장 7-11절에서 예수님은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으로서 살아야할 방법을 1절에서부터 나열하고 있다고 한다. 즉, 비판하지 말라(1절), 남을 비판하지 마라(2절-4절), 외식하지 마라(5절), 거룩한 것을 주지 말라(6절), 구하라...찾으라...두드리라...(7절-11절). 자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1절-11절) 살고자 한다면, 12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남을 대접하고 살아야한다.’ 즉, 12절은 앞의 1-11절을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다는 뜻이다. 12절처럼 산다면 결국 1-11절에서 말하는 인생을 산다는 것이다.

박윤선(1977)은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면 들어 주신다(7-11절). 따라서(그러므로) 우리도 남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듯이 나에게 남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해주어야한다(12절).” 박윤선은 우리가 남에게 대접해야하는(12절) 이유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도 들어 주시기 때문이다(11절)라고 보고 있다.

William의 해석이 필자의 견해와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된다. 단지 순서가 다른 것 같다. 필자는 12절을 7-11절의 조건절로 보고 있다. 12절처럼 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7-8절에서 말하듯이 나의 기도의 요청을 들어 주실 것이다. 반면에, William은 12절을 7-11절까지의 단순한 요약으로 보고 있다.

5. 결론

지금까지 성경 마태복음 7:7-12절의 담화 분석에 있어 문장 안에서만 적용되는 것으로만 보아온 조건절이 담화 전체의 의미를 통일성 있게 만들어 주는 중요한 초구조(superstructure)로서 결정적 역할을 하고 그리고 접속사 *so*는 하나의 cohesive tie로(조건절의 의미로) 해석해야함을 살펴보았다. 우리가 만약 조건절이 전체 담화의 의미구조를 파악하는데 일종의 초구조(superstructure)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주어진 text의 참 의미 파악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참고문헌

강명렬. (1990). *FSP 와 영문의 thematic progression*. 동아 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박근우. (1992). *영어 담화문법*. 서울: 한신문화사.
- 박윤선. (1972). *성경 주석 공관복음*. 서울:영음사.
- Calvin, Jean. (1972). *Calvin's Commentaries, A Harmony of the Gospel, Matthew, Vol III*. Edinburgh: The Saint Andrew Press.
- Chafe, W. (1970). *Meaning and the structure of languag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Dijk, T.A. van. (1980). *Macrostructures: An Interdisciplinary study of global structures in discourse, interaction and cognition*. Hillsdale, NJ: Erlbaum.
- Hagner, A. Donald. (1995). *Word Biblical Commentary*. Dallas: Word Books Publishers(채문석 옮김, 1999, *마태복음 33*. 서울: 솔로몬 출판사)
- Halliday, M.K.A. (1970). Language structure and language function. In Lyon (ed.), *New horizons in linguistics*. Penguin Books. 140-165.
- Halliday, M.K.A., and R. Hasan. (1976). *Cohesion in English*. London: Longman.
- Halliday, M.K.A., and R. Hasan. (1985). *Language, context, and text: Aspects of language in a social-semiotic perspective*. Victoria: Deakin University.
- Kress, G. (1976). *Halliday: System and function in language*.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Lenski, R.C.H. (n.d) *The Interpretation of St. Matthew's Gospel* (문창수번역, 2000, *렌스키주석 마태복음(상)*, pp.262-263, 서울:로고스 도서출판)
- Parker, F. and K. Riley. (2005). *Linguistics for non-linguistics*. New York: Pearson International, Allyn and Bacon.
- Reed, Jeffrey. (1999). The cohesiveness of Discourse: Towards A model of linguistic criteria for analyzing New Testament Discourse. In Stanley E. Porter and Jeffrey T. Reed (Ed.), *Discourse Analysis and the New Testament* (pp. 28-46). Sheffield, England: Sheffield Academic Press, Ltd.
- Thompson, S.A. (1982). The passive in English: *A discourse perspective*. mimeographed.
- William, L. (1980). *St. Matthew, Vol I*. (번역: Pulpit Bible Commentary Translation Committee, 1980, 한국 광보 개발원)

김영국

[139-791] 서울시 노원구 상계7동 205번지

한국 성서 대학교 교양학부

전화:02-950-5525

E-mail: kimykook@bible.ac.kr

Received: 30 September, 2008

Revised: 30 November, 2008

Accepted: 5 December, 2008